동아시아 샤먼의 길에서 만난 사람과 풍경

김수남 사진 기획 3부작 첫 마당 '휴먼아시아' 전
작가의 비의례 사진 조명
산지천갤러리 4층 전시실

제주 굿을 출발점으로 삼아 동아시아 샤먼루트를 탐색했던 다큐멘터리 사진가 김수남(1949~2006). 그동안 샤먼의례 사진을 통해 고인의 발자취를 따라갔다면 이번에는 그 너머에 있는 사람과 풍경에 주목한 작품을 볼 수 있다. 제주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이달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산지천갤러리 4층 상설전시실에서 진행하는 김수남 사진 기획 3부작 '사이'의 시작을 알리는 '휴먼아시아(Asian)'전이다.

이번 3부작 기획전은 내년 2월 28일까지 이어진다. 전시 작품은 총 300여 점으로 고인이 남긴 17만점의 사진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비(非)의례 사진을 조명함으로써 김수남의 사진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부는 '아시아의 풍경'으로 꾸며지고 3부는 '30년 전, 제주풍경'이란 제목으로 준비되고 있다.

거리를 걷는 여성과 아이(인도, 1992)

1부 전시에는 김수남 작가가 샤먼루트를 헤쳐가는 과정에서 그의 앵글에 포착된 아시아의 삶이 펼쳐진다. 30년 전 촬영된 사진들로 중국이 냉전의 빗장을 풀고 갓 깨어나던 시기에 만난 귀주성 마오족, 인도 북부 라다크 마을 사람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일상, 메콩강가의 물소를 탄 어린아이 등 아시아인들의 모습이 생생히 담겼다.

이 사진들을 통해 김수남 작가의 면모가 샤먼의례에서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하늘과 땅, 어른과 아이의 표정에도 스며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단 한 컷이지만 사진 속 이름모를 이들의 얼굴에 한 사람의 생애가 전해온다.

전시실 개방(월요일 휴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만 전시 첫날은 오후 5시부터 관람 가능하다. 관람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발열증세가 있는 경우 입장할 수 없다. 문의 064)725-1208.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한글서예로 꽃핀 양희은의 '한계령'

이경미의 '한계령'.

한글서예묵연회 정기전
캘리와 만남 대중화 꾀해

우리 글자인 한글이 태어난 지 어느덧 574돌. 종이와 먹, 붓을 이용해 한글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꾀한 전시가 있다. 한글서예묵연회(회장 오금림)가 '한글꽃 노래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마련한 열다섯 번째 정기전이다.

지난 22일 막이 올라 6월 4일까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먹글이 있는 집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전통 서예와 캘리그라피의 만남 등 변신에 나섰다. 제주를 대표하는 현병찬 한글서예가는 물론 대한민국미술대전 등 전국 유수 서예 공모전 초대작가들이 70여 점을 펼쳐놓고 있다.

참여 작가들은 제주민요, 가곡, 가요 등을 여러 빛깔의 서체로 써내려갔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노사연의 '바램', 조용필의 '일편단심 민들레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양희은의 '한계령',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이 화선지 위에 살아났다. 1.37m×2.7m 크기의 회원 합동 작품 '제주어 노랫말'도 걸렸다.

한글서예묵연회는 그동안 꾸준한 전시 활동을 이어왔다. 안중근 의사와 백범 선생의 유묵전, 세종대왕과 제주어의 만남전, 남북한 서예작품과 일본 서예작품으로 구성한 동북아 문자서예교류전 등을 열었다. 진선희기자

詩(시)로 읽는 4·3 (60)

이덕구

김규중

무엇을 보았는가
빨갱이 제주민중은 경계하라고
관덕정 허공에 걸려놓은 모가지
야
볼 수 없는 눈동자야
무엇을 보았는가
공포의 그림자 짙게 드리우는
그들의 눈망울을
메마른 땅 위에 스미는 너의
핏방울을
보았는가
가슴팍 주머니에 달랑 꽂혀
있는 숟가락아
무엇을 꿈꾸는가

이덕구(李德九)는 남로당제주도지부 군사부장이며 김달삼에 이은 제2대 인민유격대장이다. 조천읍 신촌리에서 태어났다. 일본으로 건너가 교토의 리쓰메이칸 대학(立命館大學) 경제학부 재학 중 1943년 학병으로 관동군에 입대했다. 1945년 귀향한 뒤 조천중학원에서 역사와 체육을 가르쳤다. 얼굴은 살짝 곰보이며 미남형이다. 늘 목소리가 컸으니 이는 미군정에 의해 구인(拘引)되어 고문을 받을 때 고막이 파열되어 귀가 멀어졌기 때문이다. 김달삼(金達三)이 1948년 8월 21일 황해도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하러 간 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군사부장과 제주도 인민유격대 사령관 직책을 이어받았다.

이덕구가 지휘하는 유격대 주력부대는 토벌대를 포위해 기습 공격하고 제주읍을 급습해 도청을 방화하고 지서를 습격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러나 토벌대의 대공세 이후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무장 대원도 100여 명으로 줄어들어 있었다. 결국 1949년 6월 경찰과 교전을 벌이다 최후를 맞았고 1949년 6월 7일 16시 화북지구 제623고지에서 경찰과 교전하다 사망하였다. 제주경찰서 화북지서 김영주 경사가 지휘하는 경찰부대는 작은가오리 부근 정글 속에서 이덕구 부대와 교전 끝에 이덕구를 사살하는 한편 그의 보신부하까지 체포하였다. 이덕구 일가족 대부분이 희생되었다. 부인 양후상과 다섯 살 아들 이진우, 두 살 딸도 죽었다. 큰형 이호구의 부인과 아들, 딸, 둘째 형 이좌구의 부인과 아들, 사촌 동생 이신구, 이성구 등도 경찰에 의해 죽었다. 당시 그의 나이 29세. 관덕정 앞 제주경찰서 정문 입구에 그의 시신을 걸쳐 세워 전시하였다.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그에게 국가훈장 3급을 서훈(敍勳)하였다. 북한은 애국열사능(愛國烈士陵)에 그의 묘비를 건립하였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문화가 쪽지

현인갤러리 서미자 초대전

제주시 노형동 현인갤러리(관장 김형무)에서 서미자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

이달 31일까지 계속되는 초대전에서 서미자 작가는 캔버스에 아크릴로 그린 '심포니2' 연작을 걸었다. 그는 초록 숲이나 바다 정경을 펼쳐놓고 있는데 그 안에 기하학적인 이미지들이 자리하고 있다. 작가는 별, 나비, 잠자리, 새 등 작고 이름없는 존재들이 우주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의 역할을 한다며 그것이 품은 무한한 우주의 에너지를 표현했다.

제주민요 무관객 공개행사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지난 26일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재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제주민요(제95호)는 내달 17일 성읍민속마을에서 무관객으로 공개 행사를 벌인다.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에 따라 기능 종목은 전시 위주로, 예능 종목은 무관객 공연 위주로 진행된다. 무관객 공연은 행사 종료 후에 한 달 전후로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공개한다.

자연유산 그림책 프로그램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세계자연유산 그림책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서관친구들(회장 허순영)이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선흘2리, 김녕리 등에서 그림책 전문가 양성, 꿈꾸는 언니·청춘 카메라, 어린이 그림책 창작교실, 세계자연유산마을 어린이 연극단, 그림책마을 국제 포럼 등으로 운영된다. 세계유산본부는 "세계유산마을 브랜드 가치 확산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동아시아 문화교류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추진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문화예술교류 사업'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비대면 교류사업으로 변경된다.

제주도는 6월 중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를 공모해 제주 문화·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영상으로 콘텐츠를 제작, 3개 국어로 번역해 해외 홍보를 추진한다. 참여 예술인과 단체는 해외공연과 국제교류 참여자 선정 시 우대할 예정이다.

제주문화기획학교 입문과정 개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지역 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제주문화기획학교 입문과정'을 개설한다.

문예재단은 2017년부터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매년 20명 내외의 신진 문화기획자 입문교육을 벌여왔다. 이번에는 '감각하고 탐구하는 문화기획'을 주제로 총 4학기제로 운영된다. 제주문화기획학교 총괄 교육디렉터인 박도빈 문화예술 커뮤니티 동네형들 공동대표, 담임 기획자인 홍동우 주식회사공장공장 공동대표를 비롯 솔가(싱어송라이터, 문화크리에이터), 유지황(팝프라 대표), 박진명(생각하는바다 대표), 조정훈(우리동네사람들 대표), 유다원·김지영(플러스마이너스1도씨 공동대표), 이나연(켈파스프레스 대표), 이소선(이야기공방마음담기 대표) 등 총 11명이 멘토로 나선다.

참가자 모집은 6월 9일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진다. 20명 내외의 교육생을 뽑을 예정으로 프로젝트 기획 선발(희망)자에겐 차년도 실행 지원금을 지원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문예재단 홈페이지 참고. 문의 064)800-9175. 진선희기자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8기모집

064)760-3320

놀면 뭐하니?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서귀포시
취업에 스펙 UP!
관광전문성과 실무능력!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다양한 맞춤형 서귀포 관광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년들이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창조형 미래인재 관광도슨트 육성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재탄생한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이 8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과정테마]
관광 1번지 서귀포 관광인재 요람
△관광 전문인재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 질적 향상
△서귀포 지역내 관광분야 이주정착 및 창업 등 경제 실현
△관광사업체의 우수 인력 고용 지원 등 일자리 창출 기여

과 정 명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교육기간 6월 29일 ~ 8월 21일(8주간)
교육시간 14:00~18:00(이론수업) / 10:00~17:00(현장수업)
교육장소 추후공지 / 도내 주요 관광 관련시설 등
모집기간 ~ 6월 12일 (18:00)까지
모집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관광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종사 또는 창업 및 취업을 준비하는 만 19세~39세
모집인원 20명
교 육 비 자격증 응시비용, 식대 등 100,000원
제출서류 지원서 (소정양식) http://cafe.daum.net/tourismdocent
접수방법 이메일(td4201@hanmail.net), 팩스 (064-739-9201), 방문(제주월드컵경기장 2층 (사)서귀포시관광협의회)
선정기준 서류 및 면접심사
면접발표 추후개별통보
교육특전 서귀포시장 인증 수료증
(우수 수료자 : 서귀포시관광협의회장 추천서)
•SMAT(서비스경영자격) 시험(교육 중 의무사항)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본 교육
•더큰내일센터 교육 및 1~7기 교육생 커뮤니티 연계
•조별 미션 수행 및 포상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관 Jeju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행 사단법인 서귀포시관광협의회